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회장(사회자): 최근 풍물반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토의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풍물반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합창반장님, 학생회 학습부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합창반장: 합창은 옆 친구의 노랫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풍물반의 풍물 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화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합창 발표회를 망칠까 걱정됩니다.

학습부장: 저희 학습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 소리 때문에 도저히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회장: 합창반과 학습부는 풍물 소리 때문에 계획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 풍물반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풍물반장: 여러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아리의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의 향의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 조용히 연주를 하려고 하지만, 연주를 하다 보면 흥이 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커집니다.

학생회장: 세 분 모두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학습부장: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려는 학우들의 학습권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풍물 연습을 학우들이 귀가한 후에 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합창반장: 학교 주변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풍물 연습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테니까요.

학생회장: 연습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습 장소를 옮기라는 말씀이군요. 풍물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풍물반장: 두 분 말씀대로 하면 소리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도 힘들고, 또 학교 밖에서 무료 연습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습부장: 그렇다면 풍물반 연습실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합창반장: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풍물반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잖아요.

풍물반장: 저희도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쉽게 방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학생회장: 일단 세 분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한 토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 위 토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문제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반장은 합창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 ○ 학습부장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 ○ 풍물반장은 풍물 동아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 |
| 해결책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장은 풍물 연습 시간의 조정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 ○ 합창반장은 풍물 연습 공간의 이동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 ○ 풍물반장은 현실적 이유를 들어 학습부장과 합창반장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 학습부장은 방음 시설의 설치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위 토의에서 '학생회장'이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 ①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③ 다음 토의 시간에 논의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 ④ 토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의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참여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3. 위 토의를 참관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물반장이 풍물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 ② 풍물반장이 사과를 했었다면 학습부장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 ③ 합창반장이 합창 발표회의 개최일을 밝혔다면 풍물반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학습부장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했더라면 풍물반장이 학습부장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 ⑤ 학습부장이 계획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차질을 빚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 꿈은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죠. ('약품 설명서'를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다시피 흔히 볼 수 있는 약품 설명서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보세요. 약품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농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먹었는데,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 체질이 그 약과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좋은 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효능이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저는 이런 저의 꿈을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나빠져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레밍은 실수로 박테리아 배양 접시의 뚜껑을 덮지 않고 실험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오니 그 배양 접시에 푸른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푸른곰팡이 주위에는 박테리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을 만들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곰팡이의 포자는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깨진 창문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했지만, 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깨진 창문 때문에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제 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플레밍처럼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중을 돌아보며) 여러분 중 혹시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플레밍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 발표 과제가 자기 진로를 소개하는 말하기였지? 그렇다면 '좋은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 꿈에 대해 발표해야겠어. 시작 부분에서는 ㉠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갖도록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나의 경험을 통해 소개해야겠어. 그리고 이 꿈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돌리게 한 플레밍 이야기를 해야겠어. ㉢ 플레밍의 실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실험의 중요성을 학문적 관점에서 강조해야겠어. 그런 뒤에는 ㉣ 플레밍의 일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밝혀야겠어. ㉤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관용구를 사용하며 정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자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② 발표자는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③ 발표자는 설명 대상을 분류하여 청중이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 ④ 발표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여 청중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 ⑤ 발표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6. <보기>의 항목 중, [감상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감상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밝힌다.
 - ㄴ. 감상 대상을 접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ㄷ. 감상 대상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 ㄹ. 감상 후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여 진술한다.
 - ㅁ. 감상 대상에 관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활용한다.

[감상문]

지난 학기 음악 시간에 서양 고전 음악의 감상 방법을 배웠다. 그때까지 서양 고전 음악이라면 자장가로만 여겼는데, 그 수업 이후 서양 고전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베토벤의 교향곡 연주를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TV 뉴스를 통해 ○○ 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연주회장으로 달려갔다.

이날의 연주곡은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이었다. 이 곡은 최초로 교향곡에 성악을 사용한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해설자가 나와 곡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이 곡이 처음 연주될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연주회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 소리마저도 듣지 못했다는 일화가 흥미로웠다.

연주가 시작되고 얼마쯤 지나자 쾌활한 곡이 흘러나왔는데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러다 잠시 후 느린 곡이 연주될 때에는 뭔가 서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힘찬 연주와 더불어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때는 정말 불꽃처럼 강렬한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난생 처음 연주회장 가서 직접 들은 음악은 오디오를 통해 듣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7~8] <보기 1>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기고문을 신문에 실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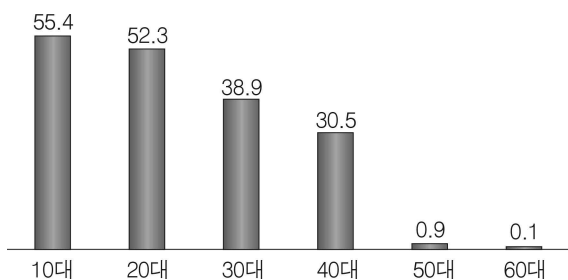
< 보기 1 >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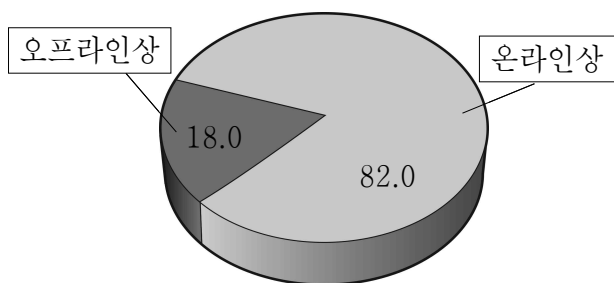
영화나 음원 등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은 다른 나라와의 협조가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나) 통계 자료

1.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률(%)



2. 유통 경로별 저작권 침해 규모 비교(%)



* 조사 대상: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

(다)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년 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는 6조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의 특성상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보기 2 >

- 서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 ㉠
- 본론
 - 1.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가. 의식적 측면 ㉡
 - 나. 제도적 측면 ㉢
 - 2.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
 - 가. 의식적 측면 ㉣
 - 나. 제도적 측면 ㉤
- 결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동 촉구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다)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 ② ㉡에는 (나) - 2와 (다)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피해 규모가 큰 것은 온라인의 특성상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 ③ ㉢에는 (가)를 활용하여,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다른 나라와의 협조 체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④ ㉣에는 (나) - 1과 (다)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연령대별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⑤ ㉤에는 (가)와 (나) - 2를 활용하여, 불법 복제물에 의해 합법 시장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 통신 기술을 발전시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8. <보기 2>의 결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정부와 개인 차원을 모두 다룰 것.
- 설의법을 활용할 것.

- ① 저작권법에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릴 때 저작권이 보호되는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 ②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개인이 협력하여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 ③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작권 관련 책자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 ④ 정부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용자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 ⑤ 정부는 온라인상 저작권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 강사 양성도 필요하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려 주는 발표를 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흥미 있는 소재를 찾아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저는 얼마 전 잡지에서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대한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자기만의 개성도 **㉠**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보통 재활용한다고 하면 수명이 다한 제품을 본래의 제품보다 낮은 급으로 활용하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업사이클링은 뭘까요? 업사이클링은 수명이 다한 물건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 재탄생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이처럼 쓰던 제품을 재활용하면서도 소재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은 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본 자료에는 비닐이나 옷감 또는 고무호스로 독특하게 디자인해 새롭게 만든 가방이나 지갑 등이 있었습니다. **㉢** 현 가방이나 스웨터를 활용하여 허리띠나 이불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발하고 독특하게 디자인한 업사이클링 패션 소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저는 그 제품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다음은 윗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학생의 글’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업사이클링을 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 다른 용어와 비교하며 업사이클링을 설명해야겠어. ㉡
-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
- 구체적 사례를 들어 업사이클링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어야겠어. ㉣
- 업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발휘’로 바뀌야겠어.
- ②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재탄생시켜’로 고쳐야겠어.
- ③ ㉢: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낫겠어.
- ⑤ ㉤: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11. <보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3점]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35항 모음 ‘ㄱ, ㄷ’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아/거, -았/졌’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래, -졌’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7항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래, -래, -래, -래, -래’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놓이어’를 ‘놓여’로 쓴 것은 제35항 [붙임 1]에 따른 것이다.
- ② ‘꾸었다’를 ‘꿨다’로 쓴 것은 제35항에 따른 것이다.
- ③ ‘누이니’를 ‘뉘니’로 쓴 것은 제37항에 따른 것이다.
- ④ ‘참되어’를 ‘참돼’로 쓴 것은 제35항 [붙임 2]에 따른 것이다.
- ⑤ ‘치이었다’를 ‘치였다’로 쓴 것은 제36항에 따른 것이다.

12. 다음은 선어말 어미 ‘-겠-’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이다.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구름이 긴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ㄴ. 서울에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

ㄷ.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ㄹ. 그 목표를 (제가/형이*) 꼭 이루겠습니다.

ㅁ.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다./할 수 있겠다.)

*는 비문 표시임.

- ① ㄱ을 통해 ‘-겠-’이 미래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ㄴ을 통해 ‘-겠-’이 현재의 사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ㄷ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었-’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ㄹ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ㅁ을 통해 ‘-겠-’이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다음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이와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규정을 바르게 짚은 것은?

[질문]

- 프랑스의 수도를 적을 때 ‘파리’로 적어야 할까, ‘빠리’로 적어야 할까? ㉠
- ‘racket’의 발음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 ‘ㄷ’, ‘ㅅ’, ‘ㅌ’ 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까? ㉡
- [f]를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① | 제1항 | 제3항 | 제2항 |
| ② | 제1항 | 제4항 | 제5항 |
| ③ | 제4항 | 제3항 | 제1항 |
| ④ | 제4항 | 제5항 | 제2항 |
| ⑤ | 제5항 | 제4항 | 제3항 |

14.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의 예를 <보기 2>에서 고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1 >

발화(發話)는 발화자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발화자가 상대방(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명령문을 사용하여 발화자의 의도를 직접 드러낸다. 하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 발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평서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의문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보기 2 >

- 모임에서 만나 둘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
남자 A: ㉠ 저는 ○○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남자 B: 그 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
의사: ㉡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환자: 전부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 개학 후 교사가 학생들을 처음 대면한 상황
교사: ㉢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학생: 선생님, 저희도 그래요.
- 귀가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상황
아들: ㉣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그래, 금방 차려 줄게.
- 여행객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는 상황
여행객 A: ㉤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행객 B: 그래요. 정말 아름답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수업 시간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고치는 연습을 하였다. 고친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 고친 문장 |
|-----------------------------|-------------------------------------|
|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
|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구했다. |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 |
|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 |
|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 |
| 정든 친구와 헤어지려니 여간 슬펐다. | 정든 친구와 헤어지려니 여간 슬프지 않았다. ㉤ |

- ① ㉠: 시간 표현이 잘못되어서
- ② ㉡: 조사를 잘못 사용해서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을 누락해서
- ④ ㉣: 의미가 중복되어서
-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모음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양성모음으로는 ‘·, ㅏ, ㅑ’가, 음성모음으로는 ‘ㅡ, ㅓ, ㅕ’가 있었습니다. 모음조화는 15세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그 이후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8세기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홍식이 기록해야 ㉠ 붉은 기운이 ㉡ 하늘을 췌노더니 이랑이 ㉢ 소리를 높히 향야 나를 불러 저기 물맛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 드러 보니 물맛 흥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 낫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흐며

- 의유당, 「관북유람일기」(1772) -

- ① ㉠ ② ㉡ ③ ㉢ ④ ㉣ ⑤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동물은 당연히 공격을 막으려 할 것이다. 식물의 경우는 어떨까? 식물도 공격을 당하면 스스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떤 방법으로 병원체의 공격을 방어하는지 살펴보자.

식물세포의 방어 체계 중 하나는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하여 세포벽을 보강하는 방법이다. 만일 어떤 병원체의 효소가 식물의 세포를 공격한다고 하면, 먼저 그 효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벽을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을 받은 세포벽은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효소는 분해산물로 바뀌어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로 침투한다. 분해산물이 세포 내로 침투할 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세포는 이 수용체를 통해 분해산물을 공격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식된 정보는 세포 내로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핵으로 하여금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하여 세포벽으로 보내게 한다. 그러면 다당류가 증가된 세포벽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어 병원체의 추가 공격을 막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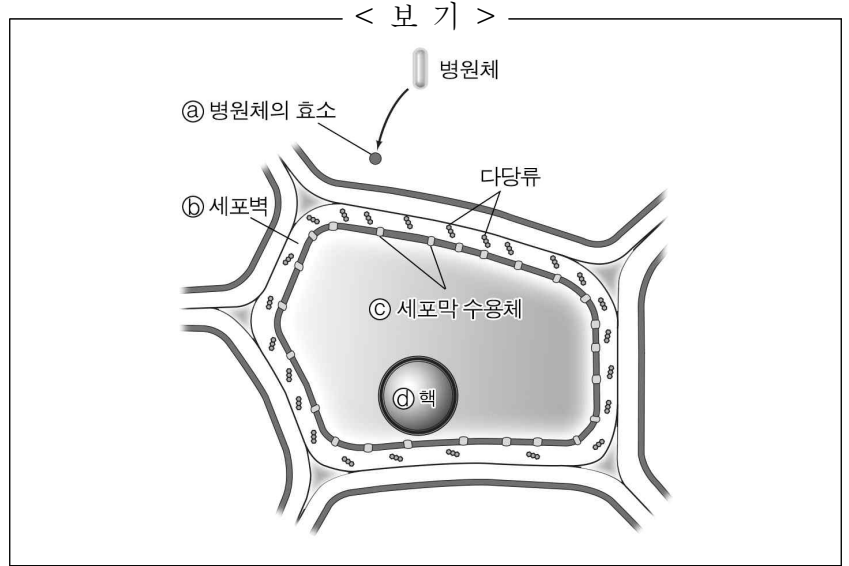
또한 식물은 PR단백질을 생산하여 병원체의 공격을 막기도 한다. PR단백질 역시 세포의 핵에서 생산되는데, 그 과정은 다당류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하다. PR단백질 중 어떤 것은 효소의 분해산물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공격을 받지 않은 이웃 세포에게 방어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한편 식물은 ㉠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을 통해 병원체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의 잎이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면, 식물은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를 죽여서 양분의 통로를 봉쇄하여 병원체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낸다. 즉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은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까지 다른 부위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식물은 종에 따라 다양한 저항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 방법은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식물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처럼 식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다.

[A]

17. <보기>는 식물세포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①의 공격을 받으면 ②의 일부가 분해되겠군.
 ② ②는 분해산물이 되어 ③과 결합하겠군.
 ③ ③을 통해 ①을 인식하면 세포의 방어 체계가 작동하겠군.
 ④ ④가 다당류에 의해 보강되면 ③은 ①을 직접 공격하겠군.
 ⑤ ④가 생산한 PR단백질 중 어떤 것은 이웃 세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겠군.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분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식물의 반응이다.
 ② 자기 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식물의 반응이다.
 ③ 병원체로부터 효소가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식물의 반응이다.
 ④ 외부의 공격으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식물의 반응이다.
 ⑤ 병원체의 주된 성분을 파악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식물의 반응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담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적 과정으로, 그 이론은 25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정신분석적 상담, 인간중심적 상담, 인지행동적 상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890년대에 프로이트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어떤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으려 했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된 ‘무의식’에 두는 ㉠ 정신분석적 상담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상담자가 그것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주면,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40년대에 로저스는 프로이트가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한 것에 반발하여 인간을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 인간중심적 상담을 주장했다. 인간중심적 상담에서는 사람은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가식이나 걸치레 없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전제나 조건을 달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공감적 태도를 취한다. 상담자가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들을 스스로 해체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상담은 이전의 상담과 달리 상담 기법보다는 상담 태도에, 문제 해결보다는 내담자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정신분석적 상담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비효율적이고, 인간중심적 상담은 심리적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엘리스는 심리적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단기적인 해결을 중요시하는 ㉢ 인지행동적 상담을 제안했다. 인지행동적 상담에서는 인간의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엘리스에 따르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의 뿌리에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깔려 있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반드시~해야 한다.’나 ‘결코~할 수 없다.’와 같이 융통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하여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환시키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정서적 건강을 되찾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19. 위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회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 가지 상담 이론의 신뢰도와 정확도
- ② 다양한 상담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 ③ 대표적 상담 이론의 흐름과 특징
- ④ 서로 다른 상담 이론 간의 접목
- ⑤ 상담 이론의 발전 과정과 전망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무의식에서 찾는다.
- ② ㉠에서는 내담자의 과거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 ③ ㉡에서는 상담 기법보다는 상담 태도를 중시한다.
- ④ ㉡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21. <보기>는 ㉣의 사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내담자: 선생님, 요즘 ㉠ 계속 기분이 우울하고 뭘 해도 자
신감이 없어요.

상담자: 그래, 참 안타깝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담자: 지난 ㉡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로 줄곧 그
래요. 저는 제가 당선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부회장이었
으니 당연히 학생회장이 되어야죠.

상담자: 음……. 너는 ㉢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 모든 사람이 늘 당선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니?

내담자: …….

상담자: ㉤ ‘선거에서는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해 봐. 그러면 낙선으로 잠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금세 원래의 네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내담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 ① 내담자는 ㉢ 때문에 ㉠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 ② 상담자는 ㉢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가르쳐 준다.
- ③ ㉢는 융통성 없는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한다.
- ④ 상담자는 ㉢의 부당성을 ㉣와 같이 논박한다.
- ⑤ ㉢를 ㉣와 같이 바꾸면 심리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독서란 장차 이치를 밝혀서 일에다 펼치려는 것이다. 진실로 정밀하게 읽고, 익숙하게 강(講)*하며, 적실(的實)*하게 보고, 진실되게 얻는다면, 저 책이란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낡은 종이일 뿐이니, 이를 묶어 다락에 올려두어도 괜찮다. 오직 정밀하고 익숙하며, 적실하고 참된 것은 비록 성인이라 해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다. 그럴진대 독서란 것은 그 공부가 진실로 끝이 없어, 실로 배우는 자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다.

(중략)

지금 우리의 독서란 대충대충 섭렵하여 읽다 말다하는 것이다. 이미 정밀하지도 익숙지도 않은데 어찌 적실하고 진실됨을 논하겠는가? 독서가 이런 지경인데도 또 한 책을 다 읽고는 자기 일을 이미 마쳤다고 말하며, 함부로 날뛰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책을 다 읽은 뒤에는 문득 가서 이를 실행하는 큰 일이 남아 있음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려 하는 것에 비유해 보자. 책이란 한 부의 노정기(路程記)*이고, 행함이란 말에게 꼴을 먹이고 수레에 기름칠을 해서 노정기에 따라 몰고 또 달리는 것이다. 다만 말에 고삐를 씌우고 수레를 손질해 두고는 몰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으면서, 오직 열심히 노정기만 강론한다면, 먼 길을 가려는 계획은 끝내 무너져 이루어질 날이 없다.

- 홍대용, 「철교에게 준 편지」 -

* 강: 배운 글을 선생이나 시관(試官) 또는 웃어른 앞에서 읽.

* 적실: 틀림이 없이.

* 노정기: 여행할 길의 거리·경로를 적은 기록.

(나)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은 덕에 나아가고 행실을 닦아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논어』 한 권을 읽었는데, ㉠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닥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였다.” 하고는 마침내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 홍길주, 「수여방필」 -

22. (가)의 글쓴이가 (나)의 ㉠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책을 ‘대충대충 섭렵’한다면 ‘노정기에 따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 ② 책을 읽기도 전에 ‘책이란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낡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③ 책을 다 읽은 후에 ‘성인이라 해도’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으므로 잘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다시 읽어야 합니다.
- ④ 책을 읽을 때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치 먼 길을 갈 때 ‘말에 고삐를 씌우고 수레를 손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⑤ 책을 읽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마치 먼 길을 갈 때 ‘열심히 노정기만 강론’하고 실제 말로 달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3. (가)에서 글쓴이가 독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니 평생 하는 일이다.
- ② 독서는 이치를 밝혀서 일에다 펼치기 위한 것이다.
- ③ 정밀하고 익숙하게 책을 읽어야 진실됨을 논할 수 있다.
- ④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⑤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 양상에 따라 시장 구조를 크게 독점시장, 과점시장,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록 독점시장에 가까워지고,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나누어 가질수록 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집중률’이다.

시장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점유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시장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 비중을 의미하는데, 생산량,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Y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Y기업의 생산량/시장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의 총합) ×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라면, ㉣ 시장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미국에서는 상위 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시장집중률로 ㉤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집중률을 통해 시장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장집중률이 높으면 그 시장은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률이 80% 이상이면 독점시장, 60% 이상 80% 미만이면 과점시장, 60% 미만이면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집중률을 측정하는 ㉥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도 달라진다. 어느 시장의 시장집중률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A, B, C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고 시장집중률이 80%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D, E, F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 되고 시장집중률이 60%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 파악해 볼 수 있다.

24.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구조의 변천사
- ② 시장집중률의 개념과 의미
- ③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의 비교
- ④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의 특성
- ⑤ 시장집중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점유율(%)

| 구분 \ 측정 기준 | ㉠ 기업 | ㉡ 기업 | ㉢ 기업 | ㉣ 기업 | ㉤ 기업 | 합계 |
|------------|------|------|------|------|------|-----|
| 생산량 | 40 | 10 | 20 | 25 | 5 | 100 |
| 매출액 | 30 | 10 | 20 | 25 | 15 | 100 |

* 시장 구조의 구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준을 따름.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내의 기업은 5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①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나)기업과 (다)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높아지겠다.
- ④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률이 10% 상승하면 이 시장은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하겠다.
- 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기업과 (라)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낮아지겠다.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의 불확실성이 보완된다.
- ② ㉡은 ㉣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③ ㉡은 ㉣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은 ㉣의 상위 개념이 된다.
- ⑤ ㉡은 ㉣을 합산한 결과이다.

27.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② ㉡ :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③ ㉢ :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 ④ ㉣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⑤ ㉤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울의 청계광장에는 ‘스프링(Spring)’이라는 다슬기 형상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것을 기획한 올덴버그는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했다. 이와 같이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을 공공미술이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미술관에만 전시되던 작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건물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낱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소통에 대한 미술가의 반성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미술은 점차 주변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공공미술은 참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대중을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공공미술은 대중들이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작품을 보고 만지며 체험하는 활동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라면,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여 작품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 중심’의 능동적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미술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미술가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 공공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대중이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며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결과 중심의 미술이다.
- ② 올덴버그의 ‘스프링’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작품이다.
- ③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 ④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 창작에서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 ⑤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은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야 린, [베트남 참전 기념비]

기존의 우뚝 솟은 기념 조형물과는 달리, 베트남 전쟁 재향 기념관에는 70미터 길이의 벽에 58,000명의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며 개인의 슬픔과 국가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능동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전쟁과 그 희생자에 대해 기억하도록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념비이자 예술 작품이 된다는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 ① 관람객이 아픈 역사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감상에 임할 수밖에 없겠군.
- ② 베트남 전쟁 재향 기념관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작품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장식이겠군.
- ③ 관람객의 체험을 통해야만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로 볼 수 있군.
- ④ 기존의 조형물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관람객에게 수용되지 못하겠군.
- ⑤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과의 소통에 장애물이 되었겠군.

30. [A]의 입장에서 <보기>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주변의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던져 놓은 듯 만들어 놓은 공공미술 작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는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미술가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들은 대중에 의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공공미술 작품이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작품에서 작가의 미학적 입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 ④ 공공미술에서 미술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다.
- ⑤ 미술가의 생각을 작품에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이 난해하게 느끼면 이 작품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 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 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빠 저어 숙향의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이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게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까?”

하니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국에 모여 잔치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심에 수변으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와서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숙향이 선녀더러 물어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 강물을 평지같이 다닙니까?”

선녀 말하기를,

“그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전일 부인의 부친 은덕으로 살아났으며 이제 와서 부인을 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고행하다가 더러운 이름을 쓰고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하여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한 것인데 그대들이 멀리까지 와서 수고로이 구하여 주시니 감격하여이다.”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께서 인간 진애에 잠겨 저희를 몰라보십니다.”

하고 ㉔ 이슬 같은 차를 주며 말하였다.

“이를 먹으면 자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숙향이 받아먹으니 그제야 월궁소아로서 태을과 글을 지어 창화*하고 월연단을 흠쳐 태을을 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 일과 그 아이 둘이 부리던 시녀였던 것이 기억났다. 말미암아 붙들고 반기며 말하기를,

“내가 전생의 죄가 중한 탓으로 부모를 잃고 고생은 하려니와 장 승상 댁에서 얻은 누명은 무슨 일이나?”

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부인은 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장 승상 집 인연도 다만 십 년 뿐이었습니다. ㉕ 사향 이 부인을 모함한 죄로 옥제께서 진노하시어 이에 벼락을

내려 죽였으며, 부인의 애매함도 이미 장 승상 집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들에 와서 부인을 찾다가 못 찾고 도로 갔으나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거니와 앞에 또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숙향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지난 일도 망극한데 또 두 액을 어찌하리오? 승상과 부인이 나의 애매함을 알았다고 하니, 그리로 가서 액을 면하고자 하노라.”

하였다. 선녀가 말하기를,

“이는 다 하늘이 정하신 것으로 임의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을이 있는 곳이 장 승상 집과 거리가 삼천삼백 리니 서로 만날 길이 아득하고 태을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하니 숙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어디에 있으며 인간 성명은 무엇이냐?”

선녀가 말하기를,

“저번에 항아의 말씀을 들으니 ‘태을은 낙양 땅에 위공의 자식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 합니다.”

하였다.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동시에 적강하여 태을은 어이 영화로이 되고, 나는 어찌 고생하느냐?”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당초 부인이 먼저 죄를 지었으므로 궁곤함을 겪게 하였고, 태을은 상제를 근시하던 선관으로 상제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항아의 청으로 부득이 적강은 시켰으나 귀히 점지하였습니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있는 곳이 삼천삼백 리라 하니 태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가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디가 만나겠느냐?”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이 홀로 가시면 득달키 어려우나 저희 연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요,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며 능과곡을 부르고 배를 띄우니, 빠르기가 쏜살같아 순식간에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은 여기서 내려 동쪽으로 가십시오.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㉖ 동정굴 같은 것 두 알을 주며 말하기를,

“가다가 시장하거든 잡수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니, 숙향이 사례하고 배를 내려 동쪽으로 향하여 갔다. 배가 고과 선녀가 주던 것을 먹으니, 배가 부르고 천상 일은 다 망연히 잊어버려 인간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젊은 계집이 외로이 홀로 가다가 옥을 보기 쉬우리라.’ 하고 촌가에 비단 옷을 주고 헨 옷으로 바꾸어 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한 눈을 감고 한 다리를 저는 채하며 막대를 짚고 갔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항아: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 창화: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앞으로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학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현실과 꿈의 세계를 교차시켜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향전」은 등장인물들이 초월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나 벌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① 용녀는 초월계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상서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였군.
- ② 용녀는 옥제의 명령을 어기고 위기에 빠진 숙향을 구하고자 인간계로 왔군.
- ③ 숙향은 초월계에서 태울과 글을 지어 노래하고 월연단을 흠친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났군.
- ④ 숙향은 인간계에서 부모를 잃고 장 승상 댁에서 누명을 쓰며 벌을 받고 있군.
- ⑤ 태울은 초월계에서 쫓겨났지만 숙향과 달리 인간계에서 영화롭게 살고 있군.

33.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는 숙향의 잃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② ㉠과 달리 ㉡는 숙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 ③ ㉠과 달리 ㉡는 숙향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 ④ ㉠과 달리 ㉡는 숙향이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⑤ ㉠과 ㉡는 모두 숙향이 지나 온 삶을 돌아보도록 한다.

34. ㉠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때, 빈 칸에 들어갈 한 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향이 옥제에게 벌을 받은 것은 _____(이)라고 할 수 있군.

- ① 자업자득(自業自得)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 ④ 고진감래(苦盡甘來)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 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란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밀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 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 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관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왔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울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리웁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

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꼭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즈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 현진건, 「고향」 -

35. 윗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떠났다.
- ②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어 실망한다.
- ③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한다.
- ④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 ⑤ 일본을 떠나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다.
- ③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한다.
- ④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대비하며 역사적 사건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⑤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서사 구조에 필연성을 강화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현진건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고향」이 창작되었다. 민족 전체가 암울하게 살아가던 때, 「고향」은 우리 민중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고향을 둘러 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지닌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농민에 대한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군.
- ③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④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한국 민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⑤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고달픈 삶을 통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

* 해원: 바다.
 *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은, 「속(續) 눈길」 -

38.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9. <보기>와 (가)를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에서 깃발은 ㉠ 이상을 끝없이 열망하지만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 한계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한계를 지니면서도 이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에 대한 열망은 깃발의 ‘아우성’으로 나타나 있다.
- ② ㉠은 ‘푸른 해원’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③ ㉡를 인식하며 느낀 좌절감이 ‘손수건’으로 드러나 있다.
- ④ ㉡를 지녔으면서도 ㉠을 향한 ‘순정’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 ⑤ ㉠을 동경하면서도 ㉡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40.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길’은 그동안 ‘온 겨울을 떠돌’았던 화자의 삶을 포용하는 것이겠군.
- ② ‘마음속에 처음으로/눈 내리는 풍경’을 마주한 화자는 ‘설레이는 평화’를 얻고 있군.
- ③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대지의 고백’을 듣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군.
- ④ ‘위대한 적막’을 지키겠다는 것은 ‘쌓이는 눈 더미’의 험난함을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에서 화자는 ‘어둠’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군.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슬푸나 즐거오나 올타 흐나 외다 흐나
 내 몸의 **희을** 일만 닷고 닷글 썬이언땡
 그 밧기 여나믄 일이야 분별홀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흐야 모를썬가
 이 므음 어리기도 님 위흔 타시로다
아모나 아모리 일너도 님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椒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우러 네는 더 ㉠ **시늬야**
 므슴 호리라 주야의 흐르는다
님 향흔 내 뜻을 조츰 그칠 뉘을 모로는다
 <제3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만코 만코 하고 하고
 어디셔 ㉡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알건마는
 님군 향흔 뜻도 하늘히 삼겨시니
 진실노 **님군을 이즈면** 그 불효인가 녀기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 ②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42. <보기>는 윗글의 창작 배경과 관련된 글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윤선도는 권신 이이첨의 횡포에 대해 탄핵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윤선도의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실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첨의 세도로 보아 화가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윤선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만류하였다. 하지만 윤선도는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상소를 올린다. 그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다.

- ① <제1수>의 ‘희을 일’이란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② <제2수>의 ‘아모’는 화자와 그 가족에게 화가 미치게 한 사람들이겠군.
- ③ <제3수>의 ‘님 향흔 내 뜻’은 아버지의 관직 복귀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겠군.
- ④ <제4수>의 ‘어버이 그린 뜻’은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겠군.
- ⑤ <제5수>의 ‘님군을 이즈면’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상소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군.

4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 ② ㉠과 ㉡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 ④ ㉠은 화자를, ㉡은 ‘어버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 ⑤ ㉠은 공간의 이동을, ㉡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십분심사일분어(十分心思一分語)란,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벅차 건만 다 말 못하는 정경(情景)을 가리킴인 듯하다. 이렇듯 다 말 못하는 사정은 남녀 간 정한사(情恨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표현이 모두 그렇지 않은가 느껴진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뜻을 세울 수가 없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꼼짝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나는 문갑 위에 조선 시대 때 제기(祭器) 하나를 놓고 무시로 바라본다. 그리 오랜 것은 아니로되, 거미줄처럼 금간 틈틈이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가 폭 배어 있다. 날카롭게 어여넌 여덟 모의 굽이 우뚝 자리 잡은 위에 얹고, 우긋하고, 매끄럽게 연잎처럼 자연스럽게 변두리가 훗쩍 피인 그릇이다. 고려자기 같은 비췌빛을 얹게 띠었는데 그

[A] 맑음, 담수에서 자란 고기 같고 그 넓음, 하늘이 온통 내려앉아도 능히 다 담을 듯싶다. 그리고 고요하다. 가끔 옆에서 묻는 이가 있다. 그 그릇이 어디가 그리 좋으냐 함이다. 나는 더러 지금 쓴 것과 같이 수사(修辭)에 힘들여 설명해 본다. 해 보면 번번이 안 하니만 못하게 부족하다. 내가 이 제기에 가진 정말 좋음을 십분지 일도 건드려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그럴싸한 제환공(齊桓公)*과 어떤 노목수(老木手)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번, 환공(桓公)이 당상(堂上)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庭下)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울시다그러 한다. 공인(工人)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될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B] 저는 목수라 치목(治木)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 보더라도 느리게 다리면 엷먹고 급하게 다르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다리는 데 묘리(妙理)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說話)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境地)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器具)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선승(禪僧)들의 불립문자*설에 더욱 일깨워짐이 있다.

- 이태준, 「일분어」 -

* 제환공: 중국 제나라 15대 임금.
* 자약하여: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여.
* 불립문자: 문자로써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문자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과거 지향적 가치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경험과 옛이야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우화를 제시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5. [A]와 [B]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나'가 '제기'를 보며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제기'를 대하는 '옛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군.
- ② [B]의 '늙은 목수'는 '환공'이 읽는 '성인의 책'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A]의 '나'와 [B]의 '늙은 목수' 모두 말이나 문장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있군.
- ④ [A]의 '옆에서 묻는 이'와 [B]의 '환공'은 말과 글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군.
- ⑤ [A]의 '제기'가 [B]의 '책'보다 후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